朝鮮日報 八日夕刊
發行所 朝鮮日報社

時評

張作霖欲自殺

部下의叛亂으로因하야 四面楚歌中에잇던 張作霖은그래도九死에一生을어드려고其子張學良을督勵하야 다시三軍을指揮하야 郭松齡을對敵하려고하엿다 그리하야 張作霖은새로 保境安民의宣言을發表하고稅金을厚斂하야軍備를充實케하며 또는萬一의境遇에 逃亡할때에는 私腹이될수잇는대로돈돈하며잇기를希望하엿섯다 그리하야 郭軍의投降者가만히잇슴을보고張君은內心에微笑를禁치못하얏다 天不亡我를자조불으짓고 郭軍의潰滅이 頃刻에잇슬것을단단히미덧섯다 그러나郭의投降은 赤壁江大戰中에黃蓋의苦肉計와가튼것이엿다

×

張作霖에게 投降하엿던郭松齡의軍士는 內部로부터張軍을攻擊하엿다 그리하야張軍은腹背受敵하게되엿다

×

아즉까지도 烏江에到着하지아니한張作霖은 多數한虞美人을내버리고 自殺하려고까지하엿다 그러나그는多幸히 杜牧之의 江東子弟多豪俊、捲土重來未可知라는指導를 이저버리지아니하엿던지 다시三軍을督勵하야 遼河를死守하려陣頭에 서 그러나時不利兮騅不逝의悲運을 맛보게되엿다 그리하야 그는畢竟七日로써下野하기로決定하엿다고한다 그가晴夜에가만히생각할때에自己同胞를爲하야 무슨일을하엿는가? 그는차라리몰려가 山水佳麗한東方의어느나라로가서 二三千萬圓가지고餘生이나便히보내려고하는것이上策일것이다 그러나 그도可能할일일가?

郭氏使者向日

×

張作霖의뒤를이어 새로奉天에雄據하고 全滿洲에號令하려고하는 郭松齡은一方으로는進軍하야奉天으로向하면서 또一方으로는 使者를日本에보내여 各方面에諒解를求하기를이저버리지아니하엿다 日本側에서는그權利를擁護한다하야 滿洲에出兵하자는것이決定되게되엿다 이때에郭軍이 日本의好意를사기에汲汲할것은定한일이다 日本에게는 張이잇거나郭이잇거나 무슨區別이잇스랴? 軍閥들은自己들의利益을擁護하기爲하야더큰日本軍閥에阿附하기를마지아니할것이다 그럼으로 우리는郭이奉天을占領하엿다는것만가지고는 日本의滿洲에對한關係가 變하여질것이라고는생각할수업다

最後決戰準備

新民府附近에서

〔張氏運命은이에서決定〕

(奉天電) 錦州에서敗退한張作霖軍은六日까지에全部新民府附近에集合하야此處에서最後의決戰을爲하기로된張軍의總司令部는巨流河의直轄인興隆店驛에移할張學良氏는此處에滯在하야新民府로부터錦州까지의鐵道는到處에大破壞를行한바鐵橋도四個所가破壞되야郭軍의前進을阻止하는中이더라

警備兵全部集中

(奉天八日發) 張、郭의和平은目下到底히望할수업슴으로奉天側은大決戰의意를決하고七日爆彈을滿載한一列車를錦州에向하야猛進식혓스나敵의狙擊을遭하엿슴으로引返하야大凌河의大鐵橋를破壞하고主力은滿鞘子에잇는데郭軍은이러함으로進軍을不得하고形勢가戰機를遷延하게되엿다 이러함으로張作霖은滿洲各地에命令하야邊境防備의諸兵도戰線에集中하기로한다東三省의準備兵은全혀皆無로되야治安의維持가難하고在住民은戰戰兢兢하야此際張、郭等은眼中에無하고日本의武力仲裁를待한다더라

張作霖免職發表

郭松齡을奉天督辦에 張、李도모다免職

(北京八日電) 八日夕左와如히發表될터이라더라

一、張作霖免職
二、郭松齡奉天督辦
三、張宗昌免職
四、李紀才를山東督辦
五、李景林免職
六、孫岳을直隸督辦

汲金純郭軍에捕虜

連山灣附近에서大敗되여

(奉天電) 消息不明이던汲金純軍은連山灣附近에서大敗後汲氏는郭軍에逮捕되고其部下는錦州에서掠奪을恣行한後一部는郭軍에投降하고一部는武裝解除를當한事가判明되엿더라

張作相奉天撤退

爲先長春에滯在할터

(奉天七日發) 張作相은七日午後十時十分으로敗殘兵千五百名을率하고吉林으로往하엿는데彼는表面新兵操出期가될凌河의一戰에參加하라는意味이나其實은旣히彼에게는勝算가업서態度조케撤退를決行한것인데爲先長春에滯在하야軍事會議를開하고郭松齡의奉天入城의際에獨立을宣言하라고하는心算이라더라

奉天城內一時少康

(奉天電) 六日張軍總崩의報에接하고奉天中國人은大히驚愕하얏섯스나 七日朝來大落着된氣分이잇스니其理由는郭軍의追擊이如意치못하며特히日本軍隊가警備의任에當한事張作霖氏가最後의決戰準備를結果郭軍것奉天入에는若干의日數를要할것이며、錦州에잇는張軍의飛行隊는六日모다奉天에移하얏더라

商議의和平勸告

郭氏에決議提出

(奉天七日發) 奉天商議會代表婚時雨外五名은商議會의決議를携帶하고和平을勸告키爲하야郭松齡과會見코지七日夕出發하얏더라

日人避難準備

(長春八日發) 吉林在住日人은保護하기爲하야警官이增派될터이나萬一의際는總領事館外二個所에避難의準備를하엿고七日吉林의中國側各會의代表는奉天에赴하엿는데右는張作霖氏失脚의情報에依하야張作相督辦에게面會하고直히吉林에歸하야治安維持에努力하도록懇請하기爲함이라더라

郭氏手腕如何

東三省入은疑問

(北京七日發) 張作霖失脚에關하야消息通은語하되張作霖도하릴업시下野하게된것은事實인데失脚하엿다고直히郭松齡이가東三省에入할가아니할가는甚히疑問이다特히郭松齡은政治的手腕에잇서未知數의人物인바假令其手腕이잇다하드래도果然成績을擧할가는疑問이다恩人인張作霖에게叛하고姜登選을銃殺한것은彼의前途를不安하게할것이라云云

奉天省長에

吳景濂決定

(北京七日發) 郭松齡은吳景濂을奉天省長에任하기로決하엿더라

外人은絶對保護

郭松齡對外交團通電

(北京七日發) 郭松齡은七日北京外交團에게左와如한電報를發하엿더라

余는奉天에入한後各國과의條約及權利를尊重하고且在留外人의生命財産은責任을가지고此를保護하겟다云云

國際條約도

勿論承認

對日通電內容

(東京電) 過般來郭松齡氏는日本의對中態度를顧慮하는中이던바七日에遂히幣原日本外相에게左와如한通電이잇더라

余는部下와共히國民의意思에從하야奉天에歸還하랴고하노라그런데余의目的은奸少輩를除하고內爭에參加치아니하야平和를樹立하랴고함으로內로는整理를圖하고外로는列國에對하야友誼를敦厚히하야共存共榮을圖謀하랴고함 外國居留民의生命財産은勿論此를保護하고且從來의國際條約을承認함은말할것도업고余는夙히日本과의國際交情을留念하노니日本國은正義를爲하야盡力하기를希望함 茲에閣下가貴國政府並貴國國民에對하야內政不干涉主義를取하야中國의內政에對하야嚴正中立을守하기를期待함願컨대將來益益日中兩國民의感情을圓滿히하기를希望함云云

打擊은日本이尤甚

張氏沒落과東三省關係利權

(東京電) 張作霖氏沒落에伴하야郭松齡氏가奉天城을占領하게되매가장其影響을受할은日本인바特히滿洲方面에對한金融經濟界의前途는一大不安을招來하야張氏가發行한三億의軍票에關하야郭이無責任의態度를取한다하면滿洲의經濟界는混亂하야日人의有한約六千萬元의奉天票가無價値에歸하엿슴으로當局을爲始하야各方面에서는滿蒙에對한利權擁護對策에對하야狂奔하는中인데日本의對中外交에도一轉期를來하리라고貴衆兩院에서도다會合을開催하고滿蒙利權擁護에對한適當의方策을樹立하라고 [illegible]

張沒落後의東三省

◇赤色化?萬全?

…日人側各方面의觀測

(奉天電) 郭松齡氏의東三省獲得은東三省에對한軍閥의沒落을意味하고新舊思想의激烈한爭鬪를表示한것으로各方面에非常한衝動을與하엿는데果然郭의天下로되면東三省은엇더케될가各方面의意見을綜合하건대

▲日本軍閥派 에서는郭은馮의後援이잇고以前부터勞農政府와도秘密關係도잇는바特히今回氏에依하야組織될東三省官憲에는赤色味를帶할것은明白하고特히外交部長될許世英氏는純然한赤色으로日本에서排日을起하든者이매今後數年이못되야滿洲는赤化하고그것이朝鮮에傳播되야可恐할일이起하리라고觀測하고

▲新入日人派 는張의沒落은스스로種子를蒔하엿다하야當然하다하엿다第二奉直戰以來로張의日人壓迫은甚한것이잇서怨嗟의的이되엿고新入郭松齡氏는軍官인一方君子人이여서學生과其他의方面에私財를投하야公共事業에盡力하엿슴으로評判은惡하지아니한다氏가六日奉天居留民會長에게한公開狀에도日本의嚴正中立을非常히喜하야國際的旣得權은어듸까지든지此를認하겟고日中共存共榮은日本으로國民의同情과相俟하야萬全을期하고저한다고하얏슨즉郭이잇스면도리혀日中間의交涉도圓滿히行하겟고赤化云云等은決코念慮할것이업다中國國民에共産制를施行함에는너머遠한國民性이잇다하야도리혀歡迎하더라

郭氏秘書渡日

諒解를엇고자

(天津七日發) 郭松齡氏는日本政府의諒解를得하기爲하야其秘書蔡氏를使節로서七日渡日途에就하엿더라

萬一이면斷乎處置

在滿日人保護問題와

日本陸軍當局의方針

(東京電) 奉天軍의內訌에伴하야張學良軍의戰況은張軍에不利하야張의沒落은時日問題가되얏다假令張氏가今遼河의戰에最後의一戰을試할지라도其頹勢를挽回하기는不可能하다고軍部方面에서는觀測하는中이다、日本政府가此間에處하야嚴正中立絶對不干涉의態度를持할은屢報하얏거니와此戰爭에滿洲에잇는日人의生命財産이危險에瀕하야條約上의旣得權이侵害되지나아니할가憂慮하야陸軍當局은此의善後策을協議한結果陸相은外務當局과折衷하는中이던바七日午後에至하야陸相으로부터白川關東軍司令官에對하야重要訓令을發하야居留日人의生命財産을保護키爲하야滿洲에잇는條約上의旣得權을維持키爲한에는斷乎한態度로一切의機宜手段을取하라命하얏더라

適宜處置는

關東軍司令官에

(東京電) 確聞한바에依하면外務、陸軍兩當局은凝議한結果日本政府는大體로左와如한方針으로써中國動亂에臨하기로決하얏다더라 尙且八日의閣議에서宇垣陸相은此際陸軍側으로부터提案하야其結果或은聲明을發하는지도未知이더라

一、中國動亂의形勢가時時刻刻으로變化하야將來의推移는豫測키難하나目下奉天軍의敗走한것은事實이다그러나日本政府는目下의形勢로는[illegible]又는出兵치아니할事

二、適宜한處置는外務陸軍兩者의協議한方針에基하야白川關東軍司令官에一任할事

外、陸兩省

遽然緊張

(東京電) 七日午後加藤首相과會見한幣原外相은歸廳하는同時에出淵次官、木村亞細亞局長等과協議하고一方陸軍當局과外務當局의來訪이頻頻하야매우緊張한意를示하더라

處地表明

聲明書近發

列國政府에

(東京電) 陸軍當局에서는今次의中國動亂은例年의動亂과其趣를根本的으로異히하야此戰況의推移如何는日本의滿蒙政策에重大關係가잇스며從하야此間에處할日本의態度는列國의가장注目하는바임으로此際聲明書를發表하야滿洲에잇는日本國의地位를聲明하는것이가장必要하야八日定例閣議席上에서宇垣陸相으로부터聲明書發表의必要를力說하야同閣僚의贊成을求할터이더라

李景林戰線出馬

市民國旗揭揚餞送

(北京七日發) 奉天의敗報가頻頻히到達함에不拘하고李景林의決心은不動하야全軍의士氣를鼓舞하기爲하야七日朝天津의南方馬廠에出動하엿슴으로市民은每戶에國旗를揭揚하고李景林의出陣을送하엿다一說에는馬廠의張宗昌과會見하기爲함이라고도傳하더라

三巨頭聯合對戰

(北京七日發) 李景林、張宗昌及吳佩孚三氏의聯合은完全히成立되야今回奉軍이失敗되얏슴에不拘하고國民軍과一戰하기로決한結果李張兩軍에呼應하야兩氏는擧에乘하야河南에進入하기로決하얏더라

國民軍의作戰計劃

一、二軍에分하야天津挾擊

(北京七日發) 馮氏는天津을攻擊키爲하야二軍에分하야第一軍司令張之江、第二軍司令鄭金聲兩氏를任命하야第一軍은北方으로第二軍은南方으로부터天津을夾擊할作戰策인데二軍에屬한國民軍의第二第三軍은旣히馬廠의戰線에就하얏더라

倒閣聯盟

協議經過

(東京電) 政、本兩黨倒閣聯盟實行委員會는七日午後六時부터帝國『호텔』에서開催하고種種協議한後左의商議를하고散會하엿더라

一、十二日芝區三緣亭에서政本兩派의院內外의倒閣問題에對한大懇親會를開催할것
二、倒閣聯盟事務所는芝區三緣亭에設置할것

傳하도록少한努力을要할가한다 所는現今의査中인故로不明하나如何間[illegible]하고자한다云云

産業組合의要旨

生産品利用이目的

安達總督府商工課長談

本年中에는安達總督府商工課長은七日夜에歸任하엿는데明年부터實施하게될産業組合에對하야左와如히語하더라

産業組合令은明年一月부터實施케될는데本은各處大小都市마다農村을利用코자하는問屋(客主)이有하야이곳에서利用組合의骨子가되는販賣及購入等의業務를營함에더러甚至於農業資金까지貸付하는故로實質에잇서서利用組合의必要를感치안케되는外觀인가한다 그런데朝鮮에는

信用組合

에代할만한金融組合이相當히發達되어서此로서信用組合의業務는엇던程度外지兼行하여노치마는生産品을利用할만한問屋은全無하여또는當局에서는從來生産에對하야는相當히奬勵하여왓스나生産品利用에對하야는何等施設指導가無하엿다 그럼으로朝鮮現狀은信用組合보다利用組合施設의急務는認하게되엿다 따러서利用組合인産業組合을設置하야爲先無爲徒食의輩로하야금職을與한後其勞力을利用하야産業의發達을圖코자함이理想이다然이나此는理想에不過한故로及其多少의效果다도

企業關係

及資力等必要에應하야一面又는數面에一個或은數個組合이라도設置하게될는지알수업다 그런데日本産業組合과特殊한要點은朝鮮에는信用組合이無한것이다日本의産業組合은信用及利用에兩分되여잇서信用組合은資金融通의金融機關이요利用組合에서는其共同販賣購入利用의業務를當하는데日本의現狀을보면信用組合은非常한發達을遂하엿스나利用組合은그러치못한바其原因을探究하여보면日

印刷罷業

益益擴大

(東京電) 日淸印刷及秀英舍의罷業團은態度가强硬하며更히七日富士印刷三秀舍도罷業에參加하얏슴으로關係印刷業者는對策을考究中이나妙案이업스며一方新年號는압해두고雜誌業組合의督促에매우困況에陷하얏더라

無産政黨禁止

政友會眞狀調査

(東京電) 政友會에서는農民勞働黨結社禁止問題에關한政務部會의決議에基하야六日安藤正純氏는若槻內相을訪하고更히七日松村警保局長을訪하야眞情을質問한바가잇섯더라

洮鐵工事中止

時局의轉換으로

(東京電) 洮濟鐵道工事는現在半分假量竣工되얏는데滿洲의事變이起하야張作霖의失脚이切迫하자工事保護의巡警은四散하고工事는中止되얏다、張作霖이失脚하고郭松齡이奉天에入하야東三省의實權을掌握하게되면洮齊鐵道를爲始하야張氏와契約하야繼續中이던事業은中止함을未免할지라滿蒙에잇는日本事業에大變化가생길는지未知인바特히洮齊鐵道와如함은露國이國民軍의延長이라고도云할郭松齡이다東三省에覇權을掌握하면其前途가甚히不安하다하야滿鐵中인松岡滿鐵理事는此에關하야外務陸軍兩當局과意見의交換을行하는中인데政府亦對策에就하야愼重히協議하는中이더라

金融組合新設

左記金融組合을新設할旨로十二月九日付總督府告示가發布되엿더라

慶尙北道 乾川金融組合 玉山金融組合
慶尙南道 南倉金融組合 加祚金融組合

咸南線方面鮮魚

今年은咸南沿線은夏期以來非常한豐漁이엿슴으로鮮鹽干魚의出荷가多하얏든바最近에至하야特히出廻가顯著하야六日同線並鹽干魚는百五十三噸에達하얏더라

人事消息

▲尹治衡氏(醫學博士)今般寬勳洞一九七番地로移轉
▲李潤戰氏(大東醫院長)二日豫定으로釜山方面出張

八面鋒

○十一月中에賣出된煙草價가二百三萬二千九百十一圓의、巨額이라고한다、어질病이나안들길가?
○中國은、大動亂의結果로、純全한國民軍內閣이出現하리라、한다、如何間에一種進步
○張作霖免職問題辭令은、發表된다發表된다하더니、沒落後에야發表되엿다、死後의死刑宣告인가?

宣統廢帝病篤

二、三醫師絶望宣告

(北京七日發) 宣統廢帝는肺炎에罹하야調養中이던바昨今絶望을宣告하얏더라(右는宣統帝)

不遇生涯二十年

(東京電) 宣統廢帝는左右肺炎에苦痛中인바二三名의醫師에게絶望인旨의宣告를바엇는대廢帝는年이僅히二十歲로不遇의生涯를繼續하야왓섯더라

忽來忽往의日本無産政黨(四)

朗山人

『페두리』提督의黑船은三百年동안 깁게잠고잇던日本武士의꿈을깨엿다 그리하야 明治의維新이成就되여 封建制度가그자취를감추고 産業革命을招致하게되엿다 政治上으로는地方的分權制度가 餘地업시破壞되고 그우에中央集權制의君主政이復活되엿다 獨逸의비친大砲소리는 日本을社會的으로覺醒식힌바이엇다 그리하야 長下級에잇는勳作階級이이러나서自己비등의權利를 우렁차게主張하게되엿다 그들은 分로團結하야 經濟的爭鬪를開始하고또一面으로는 知識階級中의自由主義者들과結合하야 普通選擧를要求하엿다 日本의無産階級의代表者들은 知識階級의自由運動을 無産階級解放途上의第一線運動이라고보앗다

大正七八年頃에는 日本에잇서서 『데모크라시』의소리가매우놉헛섯다 例에依하야 日本의國粹主義者들은『데모크라시』主張者들을 國賊稱하기까지도하엿섯다 그리하야 大正八年初에 東京神田區錦町南明俱樂部에서『데모크라시』事實業者인感이잇던吉野博士와 國粹派의浪人內田良平氏及其同僚와의사이에立會演說까지도잇섯다이와가리되여 그때에日本自由主義者들의身體와生命까지도 威脅을밧게되엿섯다 함으로그들은黎明會라는것을組織하야自由主義者들의結束을 堅固하게하야反動的勢力에對抗하엿섯다 그後에는公開席上에서 吉野氏는『黎明會와나』라고하는 題下에黎明會의創立由來를說明할때에그張本人이 堺利彦氏이엇는데堺氏의생각에 吉野氏는 第一線에서는사람인즉 그를包圍하여야하겟다고 福田博士와相議하야 黎明會를組織케한것이라는것을말하엿다 그때黎明會에는 現在政治硏究會에 잇서서牛耳를잡고잇는大山郁夫氏와勞働總同盟의政治部長으로잇서日本勞働運動界의重鎭인麻生久氏도屬하엿섯다

普通選擧法案의卽決否決을主張하고貫徹한 日本最初의平民宰相原敬氏는 大正十年十一月에 一靑年의白刃에犧牲되고말엇다 勞働運動은 逐年旺盛하여가고 普通選擧運動도또한그러하엿다 政治硏究會는 이社會相의推移에着眼하고 機會가已熟함을깨닷고 無産政黨組織을準備하기爲하야 大山郁夫氏를中心으로하고 大正十三年六月二十八日에創立되엿다知識階級의團合이다 그러나追後에 無組織勞働者도만히參加하고 또勞働組合員으로도 硏究會의趣旨에贊成하는이는 加入하게되엿다 그리하야 各處에支部의設立도보게되엿다 現在에는約八千의會員을包擁한一勢力을現出하엿다 그成立의當初에는 自由主義的色彩가매우濃厚하엿섯스나 一年을채지나지못하는동안에 一部幹部의引退에依하야自由主義的分子는 一掃되고最近에와서는 勞働組合運動上에이러난紛爭이 이硏究會에도 强烈하게 反映되게되엿다 그리하야 日本勞働組合評議會의勞働者가 絶對優勢를 占하게되엿다

鐵筆寫眞
—(投稿歡迎)—
群擁(張)은將安之오?

—(祝朝鮮日報求禮支局發展)—

求禮郡光義面 泉隱寺
求禮郡土旨面把道里 林源生
求禮郡土旨面金內里 馬瑞河
求禮郡土旨面五美里 朴炳現
內山面大坪里 韓福洙
外山面所職員一同
艮文面所職員一同
求禮郡艮文面金亭里 金鍾球
求禮郡光義面水月里 金寀坤
求禮郡光義面水月里 李基春
南原郡邑內 李珖玉

河東郡雙磎寺 主持 孫基烱
求禮郡守 朴墉燮

祝朝鮮日報陽德支局發展

陽德面事務所 勸業書記 趙致德
陽德面事務所 書記 李春植
陽德面事務所 書記 孫昌鎬
雜貨組織布木和洋雜貨商店 [illegible]

陽德邑 雜貨商店 [illegible]
陽德邑 面長 朴[illegible]
陽德邑 朝日商會 主 洪淳錠
陽德郵便所 所長 金達灃
陽德金融組合 理事 裵尙奉
陽德邑下石里 自轉車舖 自轉車古物廉價修理 朴泰緖
陽德邑下石里 日鮮雜貨 趙錫九
陽德邑 官公吏指定旅館主 朴錫昌
陽德面地境里 [illegible]
陽德邑 賣藥商 [illegible]
龍山里 農隱 李瑚植
陽德面城北里 紳士 孫世[illegible]

祝朝鮮日報江東支局設置

江東郡守 金在皓
江東金融組合 理事 重松謙修
江東郡邑內 朴相璧
江東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江東郡江東面事務所 職員一同
江東郡邑內 京城專門 醫學士 金商和
江東邑內郵便所前 司法代書人 金鳳鉉
江東邑內 司法代書人 李應圭
江東郵便所長 恒川淸三郎
江東煙草耕作組合 金成振
江東邑內 司法代書人 文漢極

延期되여오든 勞働黨員公判

팔일에경성디방법원에서 피고구명에대한일회공판

開廷劈頭에事實訊問

로동당(勞働黨)을화요회(火曜會)북풍회(北風會)무산자동맹(無産者同盟)등세단체와 합동하든데에반대파인 김덕한(金德漢)(三二) 李奭洙(三二) 李明馥(三三) 李明都(二八)동비명파 합동찬성파인金演羲(二九)李寅益(二六)金泰涬(三○) 李容鐸(三二) 金智浩(二六)등다섯명이 재동(齋洞)사단데합동사무소(四團體合同事務所)에걸려잇는 조선로동당간판을 서로빼아스라다가마츰내크게충돌되어다수한중경상자까지 내이게된사건의공판은그동안경성디방법원(京城地方法院)에서여러번연긔되어오든바팔일오전열한시부터경성디방법원대칠호법뎡에서삼면촌(三田村)재판장의심리와리견(里見)검사의립회로개뎡되엇다

재판장은 례에의하야 피고아홉명을 일일히불러세우고본적,주소,성명,직업,년령등을뭇고 다시듸를니어 김연희,리재익,리명복,리용택,김지호,등 다섯명에게는 가택침입,소요(家宅侵入,騷擾)죄로김덕한,리덕수,리명의,리명욱등네명에게는 소요(騷擾)죄로 공판을 개뎡한다는말을 선언한후 피고들의공술을시작하게되엇다

金演羲의供述

◇일본말은 알기는하나 공범자들의 관계로 특별히조선말로하겟습니다하엿스나재판장이불허가

◇금년삼월에 상해(上海)와만주(滿洲)해삼위(海蔘威)등디에간것은 만주와밋 상해등디에잇는 조선인의 생활상황을살피기위하야 갓든바 여러가지 생소한뎜이 만어서 부득이상해에서 해삼위를 구경코자 곳해삼위까지 갓든것이외다

그리고

◇십이면 칠월중에 도라와서 리덕수 김덕한등과가티 조선로동당(朝鮮勞働黨)을 조직하엿습니다

◇대정십사년봄에 화요회(火曜會)북풍회(北風會) 무산자동맹(無産者同盟)(朝鮮勞働黨)등 **네단톄가** 합동하엿는데 합동당시에는 김덕한 리덕수등은 집행위원으로잇섯스나 행방불명이되어서 집행위원으로 인뎡할수 업섯슴으로 그대로집행위원회를열고 합동을 결의한것이외다

◇그후 김덕한리덕수등이 와서 합동을극력반대할뿐 아니라 자긔들이 오래동안 행위불명으로업서 참가치못한것도 불구하고 자긔들이업는동안에 합동을결의한것을 책망하며 여러가지 사업을방해함으로 **제명처분** 을 한것이 외다

◇김덕한 리덕수등이재동(齋洞) 사단데합동사무소에걸려잇는조선로동당의간판을떼어다가 수은동에다거럿슴으로 그것을분개하야 다시그간판을 떼어다가재동합동사무소에걸라고수은동으로 가라칠지음에 그편에서다수한사람들을 장복식히고 잇다는말을듯고 다소이편 에서도 위협을보이기위하야며사람과가리갓섯스나 **수은동으**로갈뗴에용원욕요구하거나한일은업섯슴니다

◇수은동에가보닉 그사무소이층에 만흔사람이 모혀잇는모양인데 그사람들이 나를넙고이층으로올러가기에올러가보닉과연만흔사람이모혀잇슴되다그리하야 그사람들이나를 구타하자 미혜잇든 리용택김지호동이 뛰어올라와서 서로충돌이 생겻든모양이외다

李在益의供述

◇해삼위(海蔘威)에서출생하야가지고 그곳소학교를 마치고 『베드로그라드』에서 중학을 마친후 대학일년을 수요하엿슴니다

◇로국에 잇슬때에 공산주의를 연구한사람으로 공산주의자의한사람이외다

◇십삼년에 조선으로 드러와서김연희등이 조직한 조선로동당에참가하엿슴니다

◇그리하야 그후 네단톄가합동하기로 결의한후 그것을실행하엿슴니다

◇그런데 그결의할때에 집행위원으로잇는 리덕수,김덕한외두명는 업섯슴니다

◇그러나 **집행위원**회에서는합동을결의한것이아니오합동을총회의결의가아니면실행을못하기로된것인고로그집행위원회에서는총회를부르기로 결의만 하엿슴니다 그리하야 데일회림시총회를소집한결과 인원부족으로 총회를열지못하고 다시 데이회총회를 소집하야 열고그것을결의하엿슴니다 집행위원이 규측에는아홉사람이나그뗴에는일곱사람이엇는데그중네사람이모혀서결의한것이며 규측에는 위원반수이상출석이면 위원회를 열수가잇는것임니다 (오후두시까지 긔록)

公判暫時休憩

오후두시에 재판장은 계속개뎡하기로하고 잠시휴뎡을 선언하엿다

『六年이나잇든 朝鮮당이그립다』

本社特派員에對한 金子文子의獄中談

동경시곡형무소(市谷刑務所)에수감되여잇는중대범(重大犯)박렬(朴烈)과그의애인 금자 문자(金子文子)의두사람은 옹흉한 얼마남지아니한 이런디의 시일을 엇더한마음으로 보낼것인가?자세한말을듣할것업시우리는그들의가슴속을 잘 엿볼수가잇스려니와 잠은겨울해가 어느사이에사라지고 치웁고 어둔감방속에서 지리한밤을 한잠도이루지못하고 권신의피가말을만치 말할수업는고민에 헤매다가 우는까마귀가 새벽됨을말함에 떠라밝고빗난아츰해빗이 그 **별창안**에도빗치여을 쥐에그들도커음히 쉬푸리엇든 얼골살을펴고 상쾌한한숨을쉬여볼것이라이제 나는(특파원)지난사일오전일곱시에 날이밝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을면회하고자 곳 형무소로 향하야 동오전구시경에 목뎍디에달하얏다 형무소와 외관(外觀)만 번쫄떠보건데 양회(洋灰)와 **벽돌로** 놉히놉히쌓은 감옥의 장벽(墻壁)!이야말로 금성텰벽(金城鐵壁)이 아니고무엇이라?그의주위장팔은 비록 얼마되지아니하는것이나 천당만경(千嶺萬嶺)보다도 더욱험하고무서운이뎍한곳 안은비풍참우(悲風慘雨)로 일생을 지내오는박렬(朴烈)부부의 처참한력사의 뭇막을거히막어가는곳이니 과연 인세행로(人世行路)는 이와가티 참혹하고 무서웁이냐?

刑務所안에도 獨也靑靑

뜰압헤잇는 소나무하나

나는문간에서 파수하는 간수에게 명함한장을주고 박렬부부를 면회코자왓다하매 그는 이상한 눈동자로 나의아래우를한번 살펴보는것이 마치 조선사람은다 박렬과가티 무서운 사람인것처럼역이는듯하엿다 흥든 내가신문긔자라는 명함을주엇더면 그다지 의심하엿슬것은 아니것스나 형무소당국자는 조선신문긔자라면 그네부의 사실을탐지하여가지고 신문에발표할가 두려워하야 면회하니식히여줄 념려가잇슴으로 그저형명만 긔록한면회왕을주고 우인(友人)이라는말에 그들은 더욱놀낸것가탓슷다

간수를 거처면회를허가하게되는말을듯고 대합실(待合室)에 들어가기다리는중 창밧게잇는 뎡원(庭園)을 바라보매 모진서리거친바람에 모든나무가 다락엽이 되고말앗스되 오직 소나무만은 의연히 푸른빗을띄고잇서 나는 다시금 늣김이 업지아니하엿다 수십분동안을 기다리여도 면회가 되지못함으로 나는그면고롤 알아보독 박렬부부는특별범(特別犯)인까닭으로 감옥에서도 특별대우를 하여오는데 누가면회를하게되는때에는 그들의 몸치장을상당히 식힌뒤터러면회하는 장소도 보통죄수와달라밧안장식이찬란한형무소 **회의실**에서하기때문에그밧안도종정돈하기 위하야 그와가티 지례되는것이라 한다 죽엄이 닥처온 그들에게 이만큼 좀낫다는 매우로엄마나 위안이 될것인가? 간사하고 아첨이 만흔 이세상은 실로구역이 나지아니할수가업것다

面會室에나타난 金子文子의姿態

청초한얼골빗에애교를띄고 녀성운동을옥중에서도론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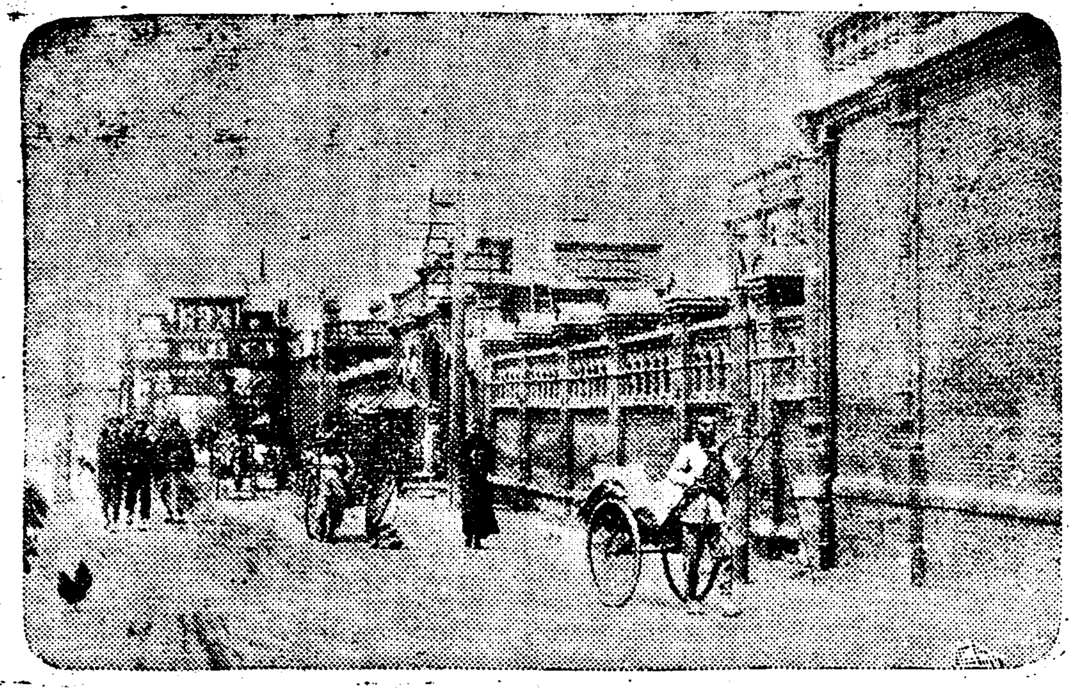
얼마뒤에오촌(奧村)이라는간수장이나를부른다 나는 그의뒤를따라 먼저말하든회의실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일본옷을입은녀자의 죄수가녀간수에게 호위되여안저잇다가 내가 들어오는것을보고 이러서서 깃분낫으로악수(握手)를한다 이가곳금자문자(金子文子)이엿다남쪽새가북쪽나무에둥어리(巢)를지엇다함가?북쪽새가 남쪽나무에 둥어리를지엇다할가?진나라와초나라(秦楚)의사이와 가튼 조선의남자 **박렬과** 일본의녀자금자문자사이에 성립된동어리라 과연 괴이하다고 아니할수가 업는것이다 그러나 박렬과금자문자의 주의는 진나라와초나라를 가릴것이업다함에 아모 괴이할도 업고 문뎨도업는것이다 엇던 주의의공명으로 국경을 초월하야 살아서는이불을가티하고 죽어서는 무덤을가티할이 더욱다정할것도 사실일듯하다 그는키가크지도 적지도아니하고 몸집이뚱뚱하지도 여위지도 아니한 동양녀자로는녹 **알마진** 자태이며얼골모형은이목구비가 청수(淸秀)한데다가 살빗이히여서 상당한미인이라 할수잇는 인물인동시에 성격은종강한듯도 하여보히나 일변으로다정다감한 애교가 흘러보히엿스며 이로써 거친생활을하든박렬이가 그로부터얼마나 위안과도음을 바닷슬것을 미루어알수가잇섯다 의외에그는 조곰도슬퍼하는빗이업고 매우 깃버하고웃는 얼골로 차자준나에게 감사하다는뜻을 표하고 내가뭇는말에응하야

일반녀성에 대하야 호소할만한감상은 별로업스나 조선의녀성은장쾌활하고 **재조가** 잇서서경성에는녀성운동단톄로녀성동우회(女性同友會)가잇서서 만히활동을 한다함에대하야 실로감격하게 생각하는동시에 장래에도 더욱분투하기를 바라는바이며 이번 우리사건에 대하야 나더러정신병이잇다고 말하는자가 잇스나 나는진정한 의식으로인뎡하는바이며 이번 사건이발각되동긔에 대하야 엇던신문은 내홍이잇슴이라하나 결코 사실이 그러치아니하엿고 더러 현재 일본신문이라는것은『쁘루조아지』의물건이낫가 족히 **준신할** 필요도업다그리고조선은사긔가 륙년이나잇든 곳임으로 깁히 그리워하는터이다

라말하고기타잡담에들어가서 로우스면서이야기할때에립회하엿든간수장은 면회시간이다 함을말하야 피차비창한 긔색으로 작별하게 되엿는데 연약한녀자로어릴때부터부모를떠러커표박의생활을한 그는얼골에 근심의 주름살이집이여 언어 행동에 자연 신경쇠약의 증세가나타나지아니할수가 업섯스며 장무를루명함만 한그도 보는사람으로 하야금 뜨거운눈물이 업슬수가 업섯다(동경특파원)

張作霖沒落과 朝鮮內의警戒

이웃나라인중국(中國)의동란은세계뎍(世界的)으로문뎨가되야잇스며더욱우리조선사람의큰주목을이끄는문데이다 고고한마적(馬賊)의출신으로 동삼성(東三省)에웅거하야 작차중국사만만민의 위에올라 련하를 호령하라든장작림(張作霖)씨가가젓든리상(理想)은 한때의 춘몽으로 지나가고 넘성락일의 비참한형세로 최후의운명을 색리고 독군(督軍)의 자리를내며 노케되엿다 문뎨는다만 장씨하야(下野)로만 그치지아니하고 점점더커지는 모양이다자본주의(資本主義)국가 대수회 주의자(社會主義者)자본주의 국가 대자본주의국가 세계침약(侵掠)국가의 약탈시장(市場)인 중국에서는이와가튼사태(事態)가 이러낫다 이에대하야일본정부에서는 한쪽에서는 출병을아니한다고하고 한쪽에서는 출병을한다고하며 그로도공포심을 위안할수업서 사정에 의하야서는 조선안에서도 엄중한 경계를 하리라한다(사진은장작림이웅거하든봉텬시가)



慶北警察部 重大犯七名送致

범인열명중에서일곱명만 칠일에대구의검사국으로

경북경찰부(慶北警察部)에서는 월전에 대구시외달서면 로곡동(達西面魯谷洞)에서중대범인리종순(李鍾淳)을데포하고계속하야경남등디로부터 두자십여명을데포하야 이래일개월동안 엄중취됴중이라함은 본보에 루차보도한바어니와 그들은 지나간륙일에 취됴를다마치고 그의일칠일오전에 피고열명중 리긔양(李起陽)과진주(晋州)에서잡아온리죽현(李竹賢)과 또고령(高靈)에서잡아온 신렴휴(申嗧休)등세사람은 그대로방석하고 남어지 일곱명은일건서류와 함께경관의 엄중한경계리에 자동차로 대구디방법원 검사국으로송치하얏다는데 사건의 내용은아즉국비밀에 부처 발표를금한다더라(대구)

永興奧野印工 盟罷顚末

최더임금과 구시간요구

함남영흥읍내(永興邑內)에잇는일인경영의 오야인쇄소(奧野印刷所)직공권부가 지난일일부터동맹파업을단행한그내용을드른즉 오야인쇄소에서는 이십세이하의 직공을 권무채용하야가지고 임금은 최상으로삼십권내지사십권밧게 아니주면서■로동시간은 아츰에컴컴하야 시작하면해가지도록 식힘으로 직공들은권긔와가튼 사소한 임금을바더가지고는 도뎌히 이치운겨울에사라갈수업슴으로 부득이 참다못하야 주인에게대하야

一、勞働時間은九時間으로할것

一、賃金은六十錢을標準으로할것

의 요구를데출하엿더니 주인되는 오야는 전연능을수업다함으로 권긔와가티 동맹파업을한것이라더라(영흥)

一致團結코자 結義契

영흥인쇄직공이 인공결의계를조직

금번함경북도 영흥군(咸北永興郡)에잇는영흥인쇄소(永興印刷所)직공동맹파업사건에 대하야일반인쇄직공들은단결할필요를절실히늣기고지난오일에영흥인공결의계(永興印工結義契)를조직하야 인공들의 일치단결을도모하기로 하엿는데 계장은리문성(李文成)씨가피선되엿다더라

◇**稱頌밧는地主** 경성부당주동(唐珠洞) 일백 십이번디사는 김상봉(金相鵬)씨는 김포군군내면 운양리(金浦郡郡內面雲陽里)에 매년칠팔십석추수하는 소유토디를두고 추수를 보라다니면서 일반소작인들을 애호함은아니라십여년이지나도록 소작료다든지소작권에대하야 무번동이업시 소작인의 편의를 도모하는중금번에도 소작 인의 정도를보아소작료를 면제 하야 주엇다하야 소작인들은 그런디 드물다고칭송이만타더라(김포)

第一回國勢調査 朝鮮總人口發表

총인구일천구백오십일만 새로어든동포일백오십만

◇豫想과가티約二千萬

십월일일로서 일제히행한 국세됴사의결과 조선동포의 수효가해외동포까지 합하야 이천삼백만명에 이른다함은 본보에이미예상보도 한바어니와 모든됴사를마친 총독부발표에의하면 일천구백 오십일만구천구백 삼인으로본보가해내동포이천만명을예상한것에 큰틀림이업스며 사십여만명 모자라는 이천만명에 해외동포의 약삼백만명을 합하면 이천 삼백만명은 당당할것이다 그런데작년말됴사는 이번국세됴사와는됴사방법이달랏슴으로 이번됴사와 비교하기에들림도업지안켓스나 작년말 현재에비하 일백사십오만 일천칠백팔십칠인이증가하얏스며조선의인구밀도(密度)는일방리(一方里)에일천삼백륙십사인으로 일본의이천사백오인에비하면 반(半)남짓하다하며그중남자는 일천일만팔천칠백오인이오녀자가구백오십만일천일백구십팔인이라는데각도별로는경상북도의 이백삼십삼만이천팔백구십이인이 데일 수위요 도별로는다음과갓더라

◇**道別世帶及人口表**

	世帶數	男	女	總計
京畿	三九一、三三六	一、〇四三、八七三	九七五、三三五	二、〇一九、二〇八
忠北	一六〇、三三五	四三七、七六一	四〇九、七一五	八四七、四七六
忠南	二四〇、七八五	六六二、七一五	六一九、〇四二	一、二八一、七五七
全北	二七〇、五二〇	七〇八、七三一	六五九、〇九五	一、三六七、八二六
全南	四四三、六七六	一、〇九〇、一八九	一、〇六七、七二一	二、一五七、九一〇
慶北	四三九、七八八	一、一九二、三四〇	一、一四〇、五五二	二、三三二、八九二
慶南	三九八、七〇三	一、〇三一、二二三	九九〇、七四七	二、〇二一、九七〇
黃海	二八八、七四八	七四一、三二八	七二一、〇三八	一、四六二、三六六
平南	二五三、九二七	六三一、一五五	六二〇、四四四	一、二五一、五九九
平北	二五八、〇五六	七二七、四五六	六八八、七四〇	一、四一六、一九六
江原	二四七、五五五	六九七、五九九	六三四、〇六七	一、三三一、六六六
咸南	二四一、〇〇五	七三九、三八七	六八四、二七三	一、四二三、六六〇
咸北	一〇六、六四三	三三五、〇七〇	三〇二、四四八	六三七、五一八
總數	三、七三〇、九三三	一〇、〇一八、七〇五	九、五〇一、一九八	一九、五一九、九〇三

江原道三陟郡에 虎列刺漸次猖獗

死亡者六、保菌者十餘 발생경로는경북연해로부터

강원도삼척군(江原道三陟郡)당디유명한어항디인원덕면장호리(遠德面長湖里)에지난달중순경부터 호렬자가발생되야 박금참궐중인데 이미사망한자가 여섯이요 현재보균자도 십여인에달하얏슴으로 당디 경찰당국에서는방역에 노력중인바 발생의원인은 경상남북도 연해방면으로출입하는 어선(漁船)에서 침입(侵入)한것이라더라(울진)

造林成算잇는者에게만 緣故林無償讓與

삼림령개뎡안확뎡결과 연고림무상양여의실시

총독부에서는연고림(緣故林)을 각각연고자에게도로내여주기위하야 삼림령(森林令)을 개뎡하라고준비중이라함은 이미보한바와갓거니와 이에대하야 작일동경으로부터도라온후등총독부산림과장(後藤總督府山林課長)의말을들으면 이의개뎡안(改正案)은이미 법제국(法制局)의심사까지확뎡되엿는고로남어지수속이 끗나는대로아못조록속히실시되게할가 한다하며 연고림의무상양여(無償讓與)라하더라도 림정(林政)의 필요상 조림(造林)의청산이확실이잇는 연고자에게한하야 양여하게 될더이라한다 그런데이긔회를 리용하야협잡배가 디방에 도라다니면서 연고자중우매함을리용하야불미한행동이 잇슬념려가잇는 고로당국에서도 상당히 취데는하겟스나 일반연고자도 그러한무리에게 속는일이 업게할이필요하다하며 각도별의 연고림면적은아래와갓다더라 (面積의反以下는切捨)

京畿	三八、三〇四	一四三、〇三三町
忠北	四三、四九三	一五八、九二二
忠南	七五、四二一	二二〇、三二九
全北	三六、二〇四	一三九、二二六
全南	七三、三三三	一五二、八三九
慶北	三〇、六五一	二二八、三七七
慶南	五一、三三九	一三三、三三三
黃海	二四、七〇三	三三八、一四三
平南	二〇、九九一	三〇七、二〇四
平北	三三、三三六	一六三、〇九二
江原	一三六、四三三	四三三、九二三
咸南	一五八、〇〇三	三〇八、九四五
咸北	九二、二九三	三六二、四一六
計	一、一四四、三六三	三、四八三、九六五

土窟이문허저 青年二名死傷

부외아현리에서

팔일 오전여섯시 삼십분경에 시외 서대문서원이 부외아현리(阿峴里)부근을순시하다가토굴(土窟)한채가넘어지고 그속에서신음하는사람의소리가들렷슴으로 문허진토굴을 헤치며보앗든바 과연그속에는 이십여세되는사람이 두명이 처여잇섯슴으로곳시내죽첨뎡에잇는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에 수용하야 응급수술을하엿스나 그중 한사람은 회생의여망이업고 그중 한사람만이다시살게되엿다는데죽은사람은 시내송월동(松月洞)사십칠번디김득복(金得福)(三○)이요 다행히 도음을바든 사람은안성군일죽면 중림리(安城郡一竹面中林里) 리룡출(李龍出)(三三)로서 그들은 작일밤이슥해서 시외아현리삼백칠십번디박학래(朴鶴來)가야채(野菜)를둘둘복덧으로지어두고문을 잡거둔 권긔토굴안으로몰리어 문을열고 들어가서잠을자다가 그와가튼 참혹한변을본것이라더라

少年慘殺事件 犯人踪跡杳然

동대문서장이현장에림검 피해소년은낫으로마즌듯

조간긔보=칠일오전열한시경에 고양군한지면마장리(高陽郡漢芝面馬場里)청계천(淸溪川)부근에서십삼사세의칼마진어린아이시톄를발견하야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검시한후 시데는 전중환(田中丸)병원으로 보내엇는데 아즉도 그죽엄의진상을몰라동대문서서장(署長)은 팔일 오전열한시에 현장에출장하얏는데 어린아이를엇지도롬시예리(鋭利)한연장으로 찔렷던지 두거운광목옷이 여러군데가씌어졋스며 불상한시데는 볼근피로 맥질을하야 보는사람의마음을 서늘케하얏다는바 며개죽기는 지난륙일밤에 죽은것을칠일에서야 발견한듯 하다하며 옷씌어진 것으로보와 낫(鎌)가튼것으로 죽인듯도하다는데 가뎡(家庭)관계로 협의자가 뒤를 발버와서 죽이엿는지 또는엇던 변태성욕(變態性慾)자가그와가티참살이나아니하엿는지알수업다하며그어린아이의궁둥이에화상(火傷)한곳이 잇다 더라

盲人組合

맹인청년에게 영리를교수한다

시내각처에 산재한 장님(盲人)들은 지난구월일일에 백여명이 모혀서 『조선맹인조합 역리뎍대청교』를조직하야 맹인청년자데들에게 역리(易理)를연구시키고 또긔도와복술(卜術)을 가르키기로하야 시내 죽첨뎡(竹添町)이뎡목 팔십칠번디에 본부를두고 리문호(李文浩)라는 맹인이 조합장이되여서 권조선에지부(支部)를 설치중 이라하며 조합원들에게는 매월사십전식을증수하야 조합의 귀본금으로하고 또조합원의 소득이잇슬경우에는 한번에이십권식을 증수하야 조합비로 사용하기로하엿다하며 일건본보에 맹인련서진정(盲人連署陳情)이라는 괴사는 사실이착오되엿슴으로 아니라 죽첨뎡이뎡목 팔십칠번디 사는 김병순 (金炳淳)씨는 그동안 여러해를두고 일반맹인을위하야이조합을조직코자만흔노력을 하엿고자긔개인의금전도수백원을쏜득지가라더라

龍山에서電車衝突

乘客과車掌多數負傷

팔일오전아홉시쯤되야 뎐차와뎐차의충돌결과

팔일오전아홉시 삼십 오분경에신룡산행(新龍山行)일백십일호뎐차가 강긔뎡(岡崎町) 정류장부근을지나다가 한지면 리태원(漢芝面梨泰院)이백이십오번디 좌좌목감일(佐佐木勘一)의 고용인 박춘서(朴春西)(一九)의집마차와충돌되여집마차에약간의 파상과 박춘서의이두개를부러트린후 그곳에 뎡류하고잇든중 그뒤에일백오십륙호 뎐차가와서 뎡류하여잇고 또그뒤를따라 일백칠십륙호뎐차가 오다가뎡류를식히려하엿스나제동긔(制動機)의 **고장으로** 뎡류가되지안어일백오십륙호뎐차를바더두뎐차의 운전대와,류리창을건부파손을식히후뎐승객이시외한지면서빙고(漢芝面西氷庫)십삼번디곽일선(郭一先)(二六)의왼편엇개에 두주일치료의중상과 삼판통(三坂通)이백구십팔번디리명하(李明夏)의 장남 범상(範商)(九)의허리에 **약세주일** 치료의중상을식히고 운권수(運轉手) 박인교(朴仁敎)(三○) 김순갑(金順甲)(二四)두명는 동파얼골에 타박상을바더슴으로 부상자는 각각부근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소관룡산서에서는 관계자를 인치취조중이라더라

萬種書籍을完備하고特別廉價로酬應하오니多小를不拘하시고注文하시요

新舊書林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七 振替京城二八五二 電話本局六二二

品質本位 시스다비누

青煉製 シスター石鹼

本舖 大阪 栗津石鹼製造所

秋季聯合大賣出

最新式 (先金注文이면一割引除함)

▲二十金張우인다 天然白石玉入價 一號 拾貳圓 二號 拾圓五拾錢

▲十八金張우인다 獨逸人造玉入價 一號 五圓八拾錢 二號 四圓八拾錢

▲最新式純대모體 天然白石玉入價 一號 九圓八拾錢 二號 八圓五拾錢

▲最新式純대모體 獨逸人造玉入價 一號 四圓五拾錢 二號 三圓五拾錢

各種眼鏡專門都賣商 京城鍾路二丁目八三番地 文明堂 主 徐奎寅

總督府及各道郡御指定品

ニノミヤ變動式石油發動機

ニノミヤ高級製粉機

セントリーヒューガルポンプ

日下部式精米麥粟稗機及製粉機

右各機收穫季節分間破格割引提供하오니好機勿逸하시와注文

ニノミヤ式 一馬力부터十馬力外지在庫多數 (型錄進呈)

地方特約店募集 京城府西界洞三二 京城鐵工所 電龍山二二三番

京城府南大門外 京城鐵工所營業部 電本局九四一番

本人의黑角圓形陰陽刻姓名圖章을紛失하엿기玆에廣告함 京城鍾路二ノ七七 金東宇

公告

本年七月龍山(二村洞을含함)及麻布方面에在한床上浸水以上의水害罹災者에對하야義捐金을分配할터이오니該當者로서罹災後居所를移轉한人士는本月十三日外지左記事項을龍山出張所又는罹災當時의關係町洞總代에게屆出하시오

大正十四年十二月七日 京城府尹 馬野精一

記

一、罹災當時의住居所

一、現在居所

一、氏名

本院事力이稠殘하야各處士林義捐金으로設校補用이온바鄕便으로付送本院한金額을一一入錄校案이오나不無中間乾沒之弊하오니勿論本孫士林하고切勿出給하심을望함

乙丑十月 日 論山郡連山面遯岩書院 有司 閔泳智 金永瑞 告白

一、止得上一 眞失下八 畫下一去 官舍雙立

一字를解하면千金을得하오 書中自有萬鍾祿이라 解하시요五拾錢以上書籍을注文하시고解한字를明書하야送하시면下記賞品으로報答홈

特等一人 時計壹個

一等一人 七書壹帙

二等一人 小學壹帙

三等三人 日鮮玉篇壹部

四等四人 尺牘壹部

五等五十人 日語自通壹部

六等五十人 新小說壹部

一、期日은明年二月十五日로限홈 抽籤期日은同二月二十日 當籤者는同二月二十五日同報로通知

一、解字에適合者가定員을超過한時는抽籤으로定홈

一、注文하실時에多少先金을要홈

京城都染洞三十二番地 正直書館 主 郭釧同 振替口座京城二一六三番

優勝旗 校旗 會旗 機幕 印紳纏 入다오두

各種旗製造元 龜屋染工場 京城黃金町五丁目 其他旗附屬品一切 申請하시면가타로구錄呈

下焦病 虛弱症 根治

本補血藥의効力偉大함은先服諸氏가正眞한强壯劑로確認하오

(主治) 氣虛貧血。病後虛弱。膝寒腰痛。手足厥冷。下焦濕冷等症有効

(定價) 十五日分七圓。 京城府授恩洞一三三本舖 高一藥房

告計

前通政大夫議官務安兪公煥邦氏以宿患拾貳月六日卯時別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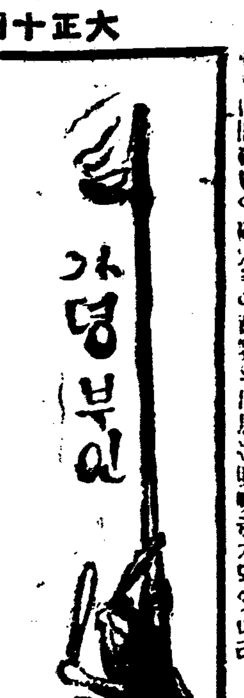
大正拾四年拾貳月六日

嗣子 在璟 舍弟 在煥 在文 任 在善

純然한國民軍內閣 奉天軍戰敗號外 郭松齡은 恒常今日이잇

失脚에基因한眞正한小規的臨時의內閣은中止되고純然한國民…
內閣崩壞이確定되어政界의出馬는明瞭하게되엿다라

가뎡부인



압흐로사흘밧게안남은 녀류대강연회

연사는우리학계에중진녀성 와서드르라! 새녀성의부르지짐을

경성녀자 긔독교쳥년회(京城女子基督敎靑年會)주최와 조선일보사후원으로 본월 십이일(토요)오후일곱시부터 종로중앙긔독교쳥년회관에서 조선에 처음인녀류대강연회(女流大講演會)를개최한다함은 이미보란에 사고(社告)로써여러번보도한바이어니와 당일연사되는 두분은이제새삼스러히 긔자가 여긔소개하지 아니하여도 벌서여러분께서 잇숙히아시는바와가티 일즉이동경녀자 의학젼문학교(東京女子醫學專門學校)를 졸업하고현재 리화녀자젼문학교교의(校醫)와태화녀자진찰소(泰和女子診察所)의사로잇는류영준(劉英俊)양과금년봄일에 미국(米國)스돈」 대학종교철학과(宗敎哲學科)를마치고즉시고국에 도라와방금 리화녀자 젼문학교에서교편을 잡은 김활란(金活蘭)양이올시다 연뎨는 유영준양은아즉미뎡이나 내용은 장차우리고려(高麗)민족발젼에 가장중요한어린아기위생에대한이야기가대부분 잇슬터이며 어린아기들의 톄중증가표(體重增加表)를박어서오신손님에게한장식드릴터이요 김활란양은 조선녀자의과거와현재라는문뎨로력사뎍강연이잇슬터입니다 그리고 주최측에서간간히여러분의마음을유쾌케할조흔음악도 예비하엿습니다 이녀류대강연회에는특별히두분연사의 부탁으로 녀자에게만한하야 입장을허락하려하엿스나 우리조선에서는 직접당면한녀자들보다도 오히려 뎨삼자인남자들이반드시더들어주어야할필요가잇는줄깨닷고다시누구던지 쳥강을 허락하기로작뎡되엿는바 아못조록 개회시간을어긔지말고 엄숙히직히시고강연하는동안에는 극히됴용하여주시기를 바라는동시에 유익하고 흥미잇는이강연회에 만히참석하여 주시기도또한바람니다 오시는 손님들의 호장을돕기위하야 당일입장권을 발매하기로되엿는데 보통은이십젼 학생은 십젼입니다

신랑신부

◇강화군양도면삼흥리윤재상장남은구(江華郡良道面三興里尹濟商長男殷九)(二七)군과 현재양도면흥텬학교(興天學校)에서교편을잡고잇는 동군내가면 외포리김인식장녀현옥(同郡內可面外浦里金仁植長女顯玉)(一九)양은 오는구일에 흥텬예배당내에서 고태현(高台鉉)씨주례로 결혼식을거행한다고(강화)

◇신의주부초음뎡김봉주(新義州府初音町金奉周)씨의 삼남으로본보영흥지국긔자인 경률(景律)군과 의주군광셩면셩외동류상희(義州郡光成面城外洞劉尙熙)씨의 질녀(姪女)로작년도에서배리아(西伯利亞)로부터모국에도라온 영화(永華)양과의 화혼식을십이월사일(十二月四日)(음十月十九日)에의주군광셩면산뎡예수교례배당(義州郡光城面山亭耶蘇敎禮拜堂)에서 거행하엿다고(진흥)

우리가뎡에서 항용쓰는 단방약(二)
경험한결과 가장유효한

『부스럼』 어린아기들머리에군데군데 부스럼이나서 우는것을보면참으로 가엽슴니다개버들(楊柳)닙사귀나삼(杉)나무 닙사귀를흥신 쓰려서그물에 머리를감기면낫는답니다

『치흔염』(齒齦炎)니가뎌서흔뎅흔뎅하는것은 참으로 마음外지어수선한 일이올시다 소금대신에숫불을벍어케 피엿다가 그대로두면 하얀재가되여 스러지나니 그재를것어두엇다가 재절반과소금절반으로 얼마동안 니를닥그면 모르는사이에 제절로낫는답니다 또한일본사람들이 늘먹는번차(番茶)에 오십배의 소금을타서 식기건에 양치질을하여도 효력이잇다하며 이것은인후가답아(咽喉加答兒)에사용하여도조타합니다

『결막염』(結膜炎)『도리홈』 가튼것에걸렷슬때는번차(番茶)에 오백배가량쯤 소금을타서뜻뜻하게 데인후약솜을 그물에축여서 눈에찜질을하는것이 조타는데 물이식거든 다시데여가지고오래동안 찜질을 한후에죽시아모약도 석기지아니한순참기름이나 또는약국에서파는참기름을 바르면 얼마큼효과를볼수잇답니다

『밤눈어두운이』 밤올이와반대로 낫에는 잘보면서도 조곰만어두우면 지척을 분간치못하는 사람에게 잘퉁으로검은접여더이 혹혹씨히인 밋구라지나홍어(洪魚)의간(肝)을살머서먹으면 조흔다고 합니다아마 이것은 안력이부족한 사람에게 병원에서 간유(肝油)를 먹이는법과 비슷한줄 합니다

『위통복통』(胃痛腹痛) 매실장앗지한개와 생강을 강판에갈어서 그된반쯤되는 분량으로석고 그우에 설탕을조금석근후번차(番茶)가쓰는쌔에그물을딸부가량쯤 타서잘켜어 가지고쎄여이것지 다드려 마신답니다

『어름박인데』 이날 겸겸차가나밧게서일하는사람들의손등이 터지고밤에 어름이박혀가지고 하도따리ㅁ은것은 …가서 한롤티리롤써서 갈만큼벗진후 숨에담거두엇다가 겨울에 그것을발으면낫는답니다

女流大講演會

演士及 金活蘭孃 劉英俊孃

演題 朝鮮女子의過去와現在 未定

時日 十二月十二日(土曜)下午七時半

場所 中央基督教靑年會舘

入場料 普通二十錢 學生十錢

主催 京城女子基督敎靑年會 後援 朝鮮日報社

藝苑

金剛禮讚(六)

白雲香徒

神溪寺

◇靈神洞에서나오면『서왕문』에서 狗岾(狗岾神溪間)으로 寺間의 通路를맛남니다 길은 神溪川가으로 낫슴니다 溫井里大路로나가는『술기넘이』를 마조보는곳에서 神溪川을 건너니 물의가장야튼地點을擇하기때문입니다 여긔서부터는自動車다니는길이니金剛山들어온뒤오래간만에 平坦한大路를맛보는것입니다。 져오버서난金剛山이아직도련련하야 다시들어가안길양으로도 神溪寺를차저들어가는길입니다。 群仙峽 玉流洞의兩溪流가 觀音世尊兩峰의間에서合襟하야 神溪川이되어흘러나가면서文筆峰일일이屛障된안에서 一種의平野的谿谷을일우엇는데 이都局을管領하는자리에안진것이 神溪寺입니다

◇神溪는본데新溪라하든것이니 輿地勝覽에도新字로적혀잇슴니다 傳云하기를 會前에는新溪川에鰱魚가만히潤遊하고 寺하서漁子가奔波하야 寺域의梵意를해롭게함이클더니 普雲祖師란이가 東海龍子의글스승된緣分으로써 龍王에게懇求하야 鰱魚의遊戱를寺域의外에制限하게하니이뒤로그神異를나타내기爲히야神溪다고님것게되엇다합니다 그事實인與否는어쎄갓든지 寺內에 腥穢의氣와殘害의習이 업슬수잇는대로업슬것인데 구태江原道立의養魚池가 寺의洞口안路傍에새로設置되엿슴은 첫재 普雲祖師에對하야 甚히未安스러운일입니다 그러나魚種보담도더禁忌할 다른許多한萬物이 다잇는오늘날에 養魚만은欠삽을必要가무엇이겟느냐하면 그도그만일것입니다

舍톤 시내半 길半의둘린골작이로써 사람을引導하야 神溪寺로다려가고맙니다 中間에는『倉터』라는 村이잇서 山人네의 마실살림을包擁하야잇슴니다 神溪寺는觀音迹峰이 群仙峽霞의兩峽間으로 줄기차게써처나오다가 文筆峰을資幢으로압세우고 너브죽하게열린바닥에잇는古刹이니 金剛四大寺의한아요 世尊峰을쎄고잇다하야寺域을世尊垣內라고 님컷는곳입니다。新羅法興王代普雲祖師의開基라하나 종할수업는말이며現在의建物은 다數百年이쫙의近窰이오 오즉法堂압희五重塔이 千年以上의 古著을넘어서 얼마큼新羅의風韻을傳합니다。塔거리와正陽寺의그것을어울러서金剛三古塔이라고하는것입니다。

◇神溪寺의莊嚴과雄大는 시방와서는 자최에서나보게되엇습니다 大雄寶殿한아만은오히려大刹의面貌를지녓지오마는그밧게는 여긔가그러터니라하는 石窯들만 이큰局內가좁을세라고 또야기또야기억개를겻고잇스며 莊獻世子의願堂이蘭熙殿과 重創한것이나마說禪堂큰채가 오히려神溪寺로하야금神溪寺이게하는 貴重한建物을짓습니다 그러나타버린것은업서도 그만인집은이오 그집이생기게한밋천ㅡ잇지아니치 못할神溪寺의形勝과景致는 한아도外敗잇한溪流는말도말고 背닮이업습니다。아름다운 松林後를擁衛한觀音峰의雄麗와 眼前에拔卓한文筆峰(一云彩雲峯)의奇秀와 西與南으로世尊、彩霞、集仙等連峰의峻壯朗潤함과 이모든것이 한데熏蒸하야서,장기는 淸華圓妙한氣味는 不增不滅常住常足으로 곱다케남아잇습니다。局面과環圍가아울러妙하고 奇麗와寬敞이둘다足한 神溪寺는 과연四寺中에서도特히조흔形勝을어덧다할것입니다

鳩

金昌述 譯

창압헤로한머리비들기가날렷다
마음으로 당신의생각이지내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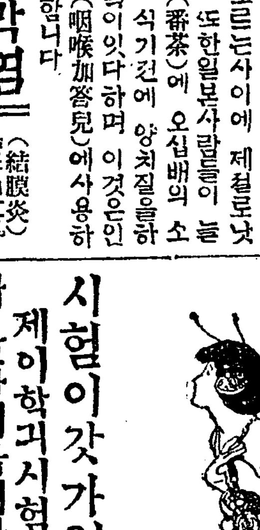
비들기의 날개가공긔에구멍을뚤엇다
생각의 주둥이가心臟의피를흘리엿다

창압헤로한머리비들기가날렷다
마음으로 당신의생각이지내갓다
(끗)

밤!

辛夕汀

오날이란 오날도
지나간다는 컴컴하고어두운
고요한 밤이다!
이밤을 자고나면
내일은와서
오날은 아조멀리가바릴테지
내일이 또오면
내일은내일의 오날이될지니
오ㅡ일으노라!
『삶』과『죽음』은
뼈와뼈의 박굼이련가



어린이신문

시험이갓가웟다

제이학긔시험이 차차 갓가워옵니다 그리하야 영희는 이재에와서는 날마다 밤이 늣도록 이전에 배운것을 복습하기 시작하엿습니다 그러나 무슨책을 보던지 만히 이저바린데가 잇섯습니다

영희는 하도 갑갑하야 모르는데 마다 언니에게 무럿습니다 언니는 영희의뭇는대로 처음에 몃번은잘 가르처주엇습니다 그리다가 나종에는 뭇는것을 잘아르켜주지안하엿습니다 영희는 너무답답하야 울고십헛습니다

이때에 어머니는 영희의 이러한 모양을보고 하도 민망한듯이 언니더러 잘아르켜주라고하고 다시 영희에게는『네가 날마다 하루에 밥을 세때식먹고 네키가 자라드시 네의 공부도 날마다조곰식하는데에서 잘알게되는것이다 며칠동안이나 밥을굼다가 하로에 별안간 밥을 며칠먹을것을 한꺼번에 먹으면 엇지되겟느냐』 고하섯습니다 영희는 대답할말이 업섯습니다

◇우미관독자의우대권은란외에◇

小說 靑衣夜叉 (청의야차)

五九

金浪雲 譯

『오늘은 당신께서』졂은자는 말하엿다『평시와는 매우달른심니다 머리를 상하시기때문에 매우 마음이 혼란하신듯함니다』

『아니 그런일업네』나는 펄쩍뛰는듯이 말하엿다 『나의머리는 자네와똑가티 분명하네』

나는 다시물엇다ㅣ

『그러면자네는 내가누구인지도 알겟네그려?』

『알다뿐이겟슴닛가 「히톤」씨시지오』

『한데 자네는 나를큰부자라고하엿지?』

『그렛슴니다 또사실로 그럿슴니다』

『훙 미안하지만 나는조곰도부자가아닐세』나는 대답하엿다 『자네는 어처구니업는 거짓말쟁일세』

『하지만「모손」은 금광을발견하엿다고 하지안슴닛가?』 그는 증거를들어 말하엿다

『훙 금광을발견하엿거니 「따이야몬드」산을 차지하엿거니내게 무슨상관이잇나』하고 나는부르지젓다

『그러치만 금광의주인이된다는것은 저의들에게는 굉장한일가티 생각이되는데요』 그는침착하게 말하엿다

『광산? 광산? 귀찬으네』 나는급히 말하엿다 『나는 그광산이란것을 도모지모르겟네 그게이아니라 나는 협잡人군들과 관계하기가 실흐네』그러고 책상압헤잇는 의자에안즈며 말을이엇다『자네는 나의일을 아는모양일세그려、한데 자네이름은 무엇인가?』

『제이름이오?』 그는 괴떡히는듯이 나의얼굴을 번하니바라보며 말하엿다 『몰으십니가 업는데 쟁지ㅡ면지뱀드 쨋지라고합니다』

『쟁지、자네는 무엇을하는사람인가?』

『영감의 비서역입지오』

『내 비서역!』나는 하도어이가업서서 부르지젓다 그러고 다시말하엿다

『그것보소 자네들은모다 나를속이려고하네 나는 비서가은것을 한사람도 돈벌이업네 ‖한번도 돈벌이업네 광산이니 금광이니하고 중얼거리지만 모다헛수작일세』

『엇재 이러실가』그는답답한듯이 한숨을쉬이고 말하엿다 『그러케생각하시면 그러시기도 하시겟지오 그사건이 잇슨후로 조곰이상하여젓다고 의사도말하엿스니가』

『쏘리텐가는놈이 무슨일이잇나』나는정이나서 부르지젓다 『나는 그대들과가티 정신이 미치지안엇네 엇재서내가 이집으로 이집으로 왓는지 그것만 똑바로 말해주면그만이야』

그는 가엽다는듯이 미소를 뛰웟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러케 생각이되엇다 의사라고 하는 그놈은개자식이 하인과 나의비서라고하는 이자에게 나의정신이 이상하다고 말하엿슬것이다、하고보면 그들에게서 무슨참말을 어더들을수가 잇스랴

『유감이오나 저는그것을설명할수 업슴니다』하고 그는대답하엿다 『그런데「모손」에게는 무어라고 답변을 할가요?』

『모손은 다무어야』나는호하여가지고 부르지젓다

『자네조롱대로 답변을하소그려 그사람의 이름은 두번도 말하지말게 나는 그런사람은 몰으네 그러고또 그런사람을 알고십지도안코 그광산이라는것도 관계하고십지안어』

『죽던을하고 그러고「도손」시에서 무슨지휘를할때까지기다리도록 답변을하지오』

『이세상이 끗질때까지라도 기다리라고하게그려』 나의 이말을듯고 그도또한 그참백한얼굴에 미소를띄웟다

잠간동안 침묵으로 지나갓다 권후의모든일을 생각하면 모든것이다 어이가업는일뿐이오 조곰도 까닭을알수가업것다 어케커녁에「킹쓰」에서 나동그러진내가 오늘와서는 별장인듯한 석골에잇서서 나의비서라고 하는자에게 큰광산의주인이니 백만장자이니하는 소리를 듯고잇섯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만커보앗다 붕대가 감기어잇섯다 확실히 공상도아니고 꿈도아닌 사실이엇다

그책상우에는 새편지지가 노혀잇섯다 나는 호긔심반으로 그것을 떠들어보앗다 한죽거긔에는「살라톤」부근「연푸리」별장이라고 련력하게 박혀잇섯다

社告

今般本支局位置를 海州面北幸町一五一 (宋彥弼氏方)으로移轉하옵고業務를一層擴張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以此照亮하옵소서

朝鮮日報海州支局 白

◇天氣豫報 曇一時晴
◇溫度 八日正午 三九、九
◇比較 七日最低 二四、八
◇日出前七時三六 晝間九時四〇
◇日入後五時一五 夜間一四時二〇

政友會眞狀調査

(東京電) 政友會에서 …禁止問題에…

大補元氣興陽不老劑

蔘茸强壯丸

蔘茸을爲君하고高貴한補材를配合한補藥의王

◆主治効能 諸虛百損、五勞七傷、降心火、補脾胃、添精益髓、益氣和血、强陽滋陰、重病回復

◆藥價 十五日分 金五圓

京城禮智洞 天一藥房 電(光)七五九 振京三〇七七 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

六味丸

滋陰補血 壯陽益精

◆主治効能 腎水不足、腎衰精渴、腎虛遺精、諸般淋濁、元氣不足、充虛補損、壯陽滋陰

◆藥價 (一個月分金三圓) 本劑는普通品과特異함

京城禮智洞 天一藥房

婦人補血調經孕胎藥

調經種玉丸

古方을그대로依據하야精製한唯一의婦人聖藥

◆主治効能 調榮益衛、滋養氣血、衝任虛損、月經不調、臍腹疼痛、赤白帶下及其他婦人病

◆藥價 卄日分 金六圓 十日分 金三圓

京城禮智洞 天一藥房 電(光)七五九 振京三〇七七 支店 京城黃金町二丁目

專門大家醫學士宮田先生發見

速되는淋疾專治藥

藥名 네오지고린(ネオヂゴリン)

本藥은專門大家인醫學士 宮田先生이帝國大學病院勤務中多數의患者에게實驗한結果로新發明한良藥임으로急性慢性의頑固한淋疾에가장速効가잇는特効藥인故로如何히重한慢性症이라도一個月假量만服用하면반드시滿足한効果를엇게되며、服藥後三十分後에는藥効로尿色의變化가되는것이니라本藥은조곰도腸胃를害하는것이아니므로 食後에白湯이나淸水에呑下服用하는데至極히생키기(呑)조흔藥이며또連續服用하더래도胃腸이던지腎臟에害는絶對로無함

◎注意 (服用法、服用量、食養其他攝生法等은現品에詳細記載하얏슴으로一覽後服用함을肝要함)

◎淋疾의容體 尿道(腎部)小便出處가간질간질가려워서尿道가각금압픈사람、濃汁、고름이나오고小便이자조나오며或은잘나오지안는사람、陰部가空然히氣分이조치못한사람頭痛逆上、眼邊이게삼치레하야지는분은곳本藥을服用하야根治케함을肝要

◎藥價 五十粒入金貳圓、百五十粒入金五圓、三百五十粒入金拾圓

◎本劑는一日三回二粒乃至三粒式服用함을要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京城支店 京城黃金町一丁目 (電話本局一六六〇 振替京城一四二五八)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九 (電話小石川四七七七 振替東京三一八五八)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停前 (電話長本局五八八七 振替大阪五二五一八)
附屬醫院 本店支店共附屬診察所를設備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과治療를하는故로患者는來店하시오

進呈 面刀其他附屬八品

切味保險附 家庭用 理髮機

大特價 九種一組 (甲 三圓五十錢 乙 三圓)

右一組의使用을望히需用家諸氏에게勸告함니다 ▲品質精選切味良好는弊商會의特色

京城鍾路壹丁目 理髮器具 直輸入商 明治商會

男子의生殖器 短衰小弱 發復育活

만흔醫學博士가證明하는

專賣特許 眞空水治療法器의偉効

人生最高의愉悅과幸福과를쌔아서가는生殖器能障害、神經衰弱의復活에는偉大한發明이라고해서衛生博覽會와發明共進會에서最高位名譽大金版를數個受領하고我政府로부터는合計五個의特許權을下附하고八大醫學博士와三十餘氏의專門醫學士實驗證明과御讚辭를바든本所의眞空水治療法器를使用하시면不治인生殖器로短小、發育、手淫及過淫의害、遺精、夢精、早漏、陰萎、快感減少、精力減退、神經衰弱、慢性痳病과如한것은着着奏効되며漸次回復에向하고人은性的으로還少되며少壯者는益益精力旺盛하게되며、畧少한費用으로은제까지라도생생하게人生天然의幸福을질길수가잇슴니다

眞空水治療法 第一位名譽大金牌受領

包莖은從來手術해서切取하는外에他道업는 包莖을專賣特許의包莖安全自療器로無血無痛하게切치안코治療할수잇슴니다

◇實驗例附圖入 說明書 新聞名記入申込次第無代로密送함 ◇個人名義 ◇僞物을注意

東京芝區愛宕下町三ノ四(鹽釜神社前) 電話高輪六六六六 振替東京七七三九
大阪市堂島中二丁目三二 電車中町西入 電話長北五一六八 振替大阪五七九九

東京 新療法研究所 大阪支部

特殊銀行監理案
五十萬圓以上貸出은認可制

(東京電) 大藏省에서는特殊銀行監理案을近近省議에附議키로되얏는데此에依하면一、今後殖銀鮮銀의兩行이五十萬圓以上의貸出을할境遇에는一一히大藏大臣에게豫히認可를得할事二、今後는每週一回監理官이兩行에出張하야檢査를하기로大體決定하얏스나此로써特殊銀行全部에適用할與否에就하야는尙且省內에서도相當한議論이有하나兩鮮兩銀行에此方法을適用할事는無違할貌樣이더라

奉派沒落과 財界影響
問題는今後

奉天軍의潰滅로因한北滿一帶의混亂이朝鮮財界에及하는影響에就하야京城銀行方面의觀測을綜合하면今次의動亂이從來의것에比하야現著히視注를惹動케하는理由는(一)動亂의範圍가北滿인事(二)親日主義者인張作霖이危急存亡에關한事變임을因함인데此進行如何가對滿貿易에波及하는影響이甚大한것은勿論이나張氏의失脚이直히日本의對滿政策에乃至貿易上에甚大한惡影響을齎하리라고는思惟치안는바此는張氏從來의親日主義라는것이頗히曖昧한機會主義이엇슴으로奉天派의沒落을그다지顧念할必要는無할것이나問題는今後의動亂이이며로移擴하면別影響이無하나今後尙且波瀾과時日을要한다면對中貿易上打擊도激甚할것이나아직은滿洲票의杜絶쯤으로別로計數에現한惡影響은無하고要는今後의形勢如何에在하다고觀測하는바오又奉天派의不勢에伴한影響이有하다하야關係銀行側에는神經過敏으로對中商取引은嚴重히警戒하더라

財界樂觀程度
井內鮮銀理事談

昨日余의談話로하야『財界回復의第一步』라肥한事가有하나余者의誤解가有함과如한點도잇슴으로만일樂觀的氣分을偏揚하는事가라도잇스면余一人의迷惑만이안일것임으로補正의意味로一言코자한다(中略)要컨대朝鮮의經濟界는大正十二年後半期부터大正十三年大正十四年을通하야現著히改善된것은事實이오將來도此情勢로進行할可能性은有하나實은只今이最히重要하고且注意를要할時機에臨한것이다萬一好景氣來의聲에迷惑하야注意를怠함과如한事가有하면直히反動을見케되야此數年來努力의收穫을失할虞가잇다此點은深甚한注意를要한다』

煙草賣行激增
農村景氣의反影乎

專賣局收入의大部分을占하는煙草賣上高는本年에入하야二三月間은前年의旱害其他影響을蒙하야不况裡에推移하얏든바八月以降은前後三回에亘한全鮮的大洪水의襲來後임에도不拘하고特別한反映이無히漸次順調에賣行을見하얏스며더욱十一月中에는二百三萬二千九百十一圓으로殆히

本年의 記錄을作하야前月에比하야二十萬四千四百二十九圓前年同期보다三十四萬二千五百八十二圓의激增을示하얏는바一月以降累計는一千五百二萬五千九百九十四圓에達하얏스며尙히本年의賣上豫定額에不及하기三十五萬餘圓인바一方需要期에入한事도잇고又一般農作物의豊作으로

農村도 比較的財況이良好한것으로보아三十五萬圓의豫定賣上高不足額을充分히補充하고도餘裕가잇스리라고觀測되며더욱春好方面으로보아도一時賊黨南功等의賣行減退를示하얏스나最近에는下級品과殆히數量上相對抗하기外지至하얏스며且最後로地方別로보면全州管內京城管內大邱管內平壤管內의順序로如何히湖南方面農村의景氣가良好한것을窺할수잇겟더라

米穀買上要望
憲政委員會에서

(東京電) 憲政會의關稅改正特別委員會는七日本部에서開하고十四年度米穀供給七千三百萬石의供給에對하야需要六千七百萬石으로結局六百萬石의持越을生할것이오日本米價는八月來下落하얏슴으로政府는米價調節上至急히買上함이可하다고決하얏더라

靑島鹽輸入
具體化는後日

專賣局井上課長談 靑島鹽朝鮮內輸入問題는去月二十日假協定에調印도見하야旣報한바에依하면此에井上專賣局庶務課長은말하되靑島鹽輸入問題는稅率十二錢으로一億六千斤을限度로하야朝鮮內輸入의暫定協定을見하얏슴으로今에直히

輸入 할수는업고近近中國의稅務關係當局並鹽의一手販賣店인永祐公司로부터實地協定키爲하야朝鮮에來할터이나目下中國의混亂狀態로보아如何할는지모르으로何時부터實際取引이

開始 될는지確答은不能하고輸入케된다면指定商이必要한데此亦急히할것은업다從來指定商을決定하든例는無함으로今回何商店을指定商으로할는지도모르겟고何如間永祐公司와도打合한後決定될것이다云云

小麥暴騰
當地도依然强調

八日入電에依하면市俄古定期는當限一弗七十九弗四分之三、先限一弗五十仙으로本年二三月以來의新高値로躍進하야消費地市場인『리파풀』도當限百六十片先限百四十九片二分之一로十一月中旬市勢보다二十五片乃至三十片의奔騰이오加奈陀도高하야日本市場도原料採算으로보아一層의高價를豫想되고或五圓三十錢市勢를期待하는便도잇는데日本會社側은四圓九十五錢을發表하얏스며當地綠띠이야도五圓을示現하야問屋側은手空의際에尙且一段의引締을豫想하더라

無盡業者에 臨時檢查施行

京城府內의無盡業者에對하야는往往規定의範圍를無視하고銀行業務를行한다는所聞이有함으로當局에서는豫히此檢查를行하야其眞相을明確케하야巷間의流說을一掃할必要를認하얏든바

理財課 에서는三、四、五日三日間에亘하야突然臨時檢査를施行하얏는데其結果에就하야는當局은言明을避하나何如間巷間에流布됨과如한程度는아니나貸出方面에至하야는銀行業務를潛行한形跡이有한貌樣이라더라

商品市況

▲油類 關稅引上說도無響히一般諸係合으로食用白絞油와[illegible]如한은一圓의反落인十六圓으로早晚하고『모빌』油十大圓五十錢더二十七八圓마신油六圓五十錢鼓動油六圓二三十錢赤貝印輝發油十圓三十錢旗印石油七圓七十錢程度目先諸合保合

▲臘燭類 南大門渠 (十二온스) 八十袋二十圓同八匁百大十三袋十九圓三十錢同四匁同上十九圓多期特製十二온스十六圓六十錢八匁十六圓四匁十六圓程度

期米

仁川期米 八日

止價比較表

	昨後止	今後止	比較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三低
中限	[illegible]	[illegible]	三低
先限	[illegible]	[illegible]	一〇低

前場瓦落

昨後場阪止三十四圓八十三錢의報와共히三十圓八十九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三十四圓八十三錢인昨止同樣의報를入하야

三十圓八十五錢 인四丁低로場을始한後阪地九十錢臺로小戾와과相竢하야八十九錢으로返戾하엿스나阪地는節節마다低價를報하야八節七十四錢인無寵을據하고七節六十一錢外지崩落하더니止際에阪止八十四錢인十丁反高를受하고突然買氣旺盛하야結局八十錢에場을止하니高低의差는二十八丁이며阪仁의鞘는四百四丁으로縮少하엿더라

軟勢아즉殘存

昨今以來의場面은阪地三十五圓臺當地三十一圓臺의底堅의商勢를支續하엿스나案外日本各市의正米買控으로俄然軟態에傾하야昨後場에阪地三十五圓臺를蹴破한落月低價를不廻할터이라當地亦三十一圓臺를蹴破하엿다 要컨대[illegible]이나五大十丁을隔한三十圓大臺衰退하기가容易할듯하다十三年產米로外외三十圓臺割을回顧하면五千九百五十餘萬石의二回預想을見한十四年產米로서는二十八九圓이라도足히割破할만한可能이잇다할것이다그러나二重凶作의苦悶을當하든米界는이實價習을打破하지못할것이더러農家의賣惜觀念이濃厚하기때문에將來硬化勢를支續하여온것인데現下日本各地의期正界가續續低落을報함을보면아즉도一段瓦落의先眹이多할뿐아니라天候의恢復과相俟하야產地實物이輻湊하는때는三十圓大臺는蹴破乃己할듯하다고

米豆餘話

▲休養時代로認하든本月도이로부터波瀾이重疊할貌樣인결아마도三十圓大臺割이容易할듯▲一時正米의細出로期正界에一陣硬風이襲來하엿엇스나昨今天候의恢復을得함인지產地玄米와正租의出廻가相當하다고▲當限解合의不調를보게된後로賣方은道具米를着着準備하는中인데大邱에서七千石을蒐集하엿다든가▲엇잿든지買方으로悲觀이업지아니할터이지當地는姑舍勿論하고阪地市場에는山田筋의十二限大渡米가現出하리라한다▲此邊七八十錢臺에서幾分繰返하다가瓦落을告할는지末知인데此에期師되야無謀히買方針을取함에는한번考慮할일▲勿論越年의大勢는上伸할줄로預測하는貌樣이나本月中旬外지는敢保合을帶하지안으면一段低落을告하기가十居八九

政府의買替는宿題에잇슴으로時期에伴應되는正米壓迫에牽制되야這間買過의反動을告한것이다그런데當市場은比較買方의勢力이優越하야前日의低價를低下치못하엿스나買方의恐怖心이不無한듯하며또는一時當限解合의不調로因하야賣方은目下渡米를着着準備中임으로結局大阪組의受渡를見하게되리라는바此에雷動된小口買方은逐退할意嚮이多한同時에又復一段瓦落을示할듯하다고云云

大臺割의趨向

約十餘日天候의不良으로地方出廻를減退하야俄然正米의反撥을見하엿스나一時的現象에지나지못하고反히暴落의趨勢를演하고期界亦買過의反動으로現下三十圓六七十錢臺의軟調를示하는바此邊에서幾分繰返할는지는마치[illegible]

十一限受渡表
證券受渡도實行

米別	受渡石數	改裝料	格付平均
困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困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上
困印	[illegible]	[illegible]	一、[illegible]强上
困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困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困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弱

以上은證券受渡의것 以上은格付受渡의것 總計 四千八百六十石

前場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三、一〇	[illegible]	[illegible]
四節	—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三、〇〇	[illegible]	[illegible]
八節	—	[illegible]	[illegible]
九節	—	[illegible]	[illegible]
十節	—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服

	當限	中限	先限
一節	—	[illegible]	[illegible]
二節	—	[illegible]	[illegible]
三節	—	[illegible]	[illegible]
四節	三、〇五	[illegible]	[illegible]
五節	—	[illegible]	[illegible]
六節	—	[illegible]	[illegible]
七節	—	[illegible]	[illegible]

各限俵合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賣方 [illegible] ▲買方 [illegible]

	當限	中限	先限
取組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帳入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合計 累計 [illegible] 八九八〇〇 三五七四三〇〇石

仁川正米小軟

	四等	三等
㊄㊅㊆玄米	[illegible]	三一、〇〇
同	[illegible]	三一、六〇
無檢查米		二九、八〇
一等精白米		三五、五〇
在來正租		九三厘
改良正租		九六厘

大阪期米

前場	寄中當	後場	止中當
一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九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十節	[illegible]

大阪氣配 三十四圓八十九錢

前場	寄中當	後場	止中當
一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各地期米

前場 後場 東京 [illegible]

金融

發行高 [illegible]

株式

兵庫 [illegible]

京取前場 八日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付	前止	後付	後止
京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仁取	—	—	—	—
仁新	—	—	—	—
安取	—	—	—	—

前場下澁

京取 三〇低 鐘新 二〇低 大新 三〇低

嫌氣投와利喰

中國問題도俄然惡化로年中行事視치못하게되어錦絲가不勞임으로昨日에氣崩된株式은今朝에入하야賣人氣가膨脹되어一齊히續落을呈하얏섯더라

大新二圓下押

阪付가八十三圓七十錢臺로三十錢에外지下하다가五十錢大引에當地는嫌氣投賣가잇섯던田道의賣者情報로高價에付한後三圓이臺割되여二圓九十錢에外지賣하야前者反價에서二圓押을示하얏다가白井의利喰等으로幾分下澁味를帶하야大引은三圓十錢으로引締이엇더라

京取依然買狙

京取는從來代引壓迫에도頑强튼反動과大阪이引續不勞로昨後場에一圓이牽制되機先수朝도市川의嫌氣投賣物이出하야二十圓六十錢으로三十錢低에付한後續崩氣勢가잇섯스나低價에는依然買狙가잇는關係로同事三本으로一氣下向이업섯는바目先二十圓大臺割은大阪如何에잇다겟더라

鐘新三本同事

鐘新에對하야도一般의意見이目先一段低를唱키에至하얏스나大阪이意外下澁으로百三十七圓五十錢에付한後三十錢에外지下하고結局六十錢大引에當地는南의腰入買가잇는關係上百三十七圓三本同事로頑强이엇더라

新規賣買警戒

春高氣分充滿이나鐘紡配當據置決定을보고도來期業績外지도念頭에두어買進을躊躇하고減配의反動이濃厚하던機先中國問題惡化로相場의伸力을挫折케하고一部强氣의嫌氣投賣를招하고且先念과日步高의關係上新規買를警戒케하는一面財政에緊縮方針이持續되고經濟界의警戒氣分이不去하야그만큼前途樂觀을떠害會케하는關係로觀測이一致됨으로大勢로買一途의한商備을呈하얏는바時히鐘新에對하야는題目이惡物이라는推測이가장妥當할것갓더라

前場賣買關係

▲京取三〇〇(賣)田中市川一五〇魚田道(買)成濟洪南大林▲鐘新一五〇(賣)新田成濟(買)市一〇〇田邊定興市川▲大新三八〇(賣)田邊二〇〇魚金秀(買)新田南白井一五〇定興成濟

株界往來

◇取引所의今期配當을보건대大株는無理히別段積立金을減해가면서六株五厘는價權取立으로僅히四分의고無配論者續出 一割配當을豫想는安取는다라을게三分 決定이라고

◇一般이渴望든十五日限大取組의沒落은王張作霖의沒落과奉天實現이엽서歲末은平凡하것고 文字대로明年에나出하게될듯!

◇果然이면明治村친구들의過歲가걱정이겟고 뎍치는소리도컬을것이다

後場區區

京取 二〇低 鐘新 七〇高 大新 二〇高

鐘新大新反戾
京取는續落

前場에下澁인鐘先後場阪付가大新十錢低鐘新十錢高로區區이엿스나後漸返에當地도幾分買氣를呼하야引返이엿스니大新은八十二圓九十錢에付한後八十三圓三十錢에鐘新은百三十七圓二十錢에付한後七十錢에各反高를呈하얏다가大引은大新鐘新共히不成이엇스며京取는續賣되어二十圓四十錢五十錢으로軟步이고結局四十錢에大引되어弱含이엇더라

代引과日步

▲京取代引二千六百四十日步十五錢▲鐘新代引八百三十日步八十錢▲大新代引千二百五十日步五十五錢

前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後場諸株步調

▲京取 [illegible]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大阪短期株式

	前付	前止	後付	後止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出來高 ▲長期累計 一六九 ▲短期累計 [illegible]

大阪短期步調

▲前場大新 [illegible] ▲前場鐘新 [illegible] ▲後場大新 [illegible] ▲後場鐘新 [illegible]

東京現株

東株	[illegible]	同新	[illegible]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毛	—	朝紡	—
富士紡	[illegible]	日石	[illegible]
甲五利	—	運取	[illegible]

海外經濟

倫敦銀塊	三二片十六分一	
英米爲替	四弗八五仙四分一	十六分三低
米棉		不變
印棉		二十錢低
스틱ㄹ株	一三七弗	
아나콘다株	二弗四分一	四分一高
	四九弗二分一	四分一高
紐育銀塊	六九仙四分一	八分一低

綿糸

大阪三品

月限	前付	前止	後付	後止
十二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糸

	前場	後場
當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城穀物市勢

白米	[illegible]	[illegible]
地稻	[illegible]	[illegible]
合格㊄	[illegible]	[illegible]
大豆	龍山 長湍 鐵原	[illegible]

▲當十二月六日부터 東牛藝術團大公演 特別大興行 男女五十八名總出演 演藝種目 大小奇術 大魔術 獨唱 東西舞踊。音樂 合唱 氣合術 催眠術 (時代、現代劇各種) 新劇 (每日交換) 藝題

名畵 戀의凱歌 七卷 〔大豫告〕 京城仁寺洞 朝鮮劇場 電光二〇五番

▲當十二月六日부터 弁社作品 實寫 國際時報 全一卷 弁社作品 喜劇 뚱뚱이남편 全二卷 弁社作品 活劇 二人의親友 全二卷 弁社大作 猛鬪肉彈活劇 鐵拳牧師 全六卷 冒險喜劇猛鬪 三笑士 全六卷 弁社大作 雪中連續 北國의狼 全十編二十卷中 第一回第一、二編四卷上映 松竹弁社特約 團成社 電光九五九番

十二月五日土曜부터名畵提供 日活會社 實寫 支那動亂 一篇 全一卷 米國명니암폭쓰社 名優줄벅|바|드氏主演 大戰活劇 强敵一蹴 全六卷 伊太利우니오비지비마이다라社 佛國文豪에드몬로스당氏原作 哲學家、大詩人劍俠各、音樂家 비에드로마니에氏主演 文藝映畵 劍俠傳 시라노 五篇 十二卷 文藝映畵 巴里 全十四卷 名畵 키|ㄹ 全十卷 映畵 지내가는影 全十卷 名畵 아|青春 全七卷 日活特約 優美館 電光三九五番